

한약전문상가의 메카

기획특집 경동시장

서울 제기동 경동시장
은 국내 최대의 한약 전문상가로 이름 높다.
지하철 1호선 제기역에서 청양리로 터진 쪽으로 가다 보면 경동시장 못미처 커다란 아치가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약재의 70%가 유통되는 이곳은 산지에서 올라오는 약재운반차량과 구매자들의 발길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룬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신춘제 행사 장면)

일반한의원보다 20~30% 가격저렴 전통 한약상가로 제2의 도약 준비

이곳 제기동 1호선 제기역에서 청양리로 터진 쪽으로 가다 보면 경동시장 못미처 커다란 아치가

보이는데 이 일대가 경동시장의 한약상가이다. 한의원, 약국, 탕제원 등 한의학과 관계있는 업소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골간데 없이는 어선길 양편의 간판을 만 보고도 누구나 한약에 이곳이 한의학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곳의 규모를 짐작하게 하는 것은 이곳에 2만 5천평에 1천여개의 한의약 관련업소가 자리하고 있다. 약국 2백 80여곳, 한의원 2백 50여곳, 「한약업자」 점포가 80여곳에 이르며, 탕제원 80곳, 한약방 129개 등이 뒤섞여 국내 최대의 한의약 도매상 그리고 한의학의

본거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곳 제기동 한약재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60년대 중반, 부근에 청양리역, 성동역, 마장동사외버스터미널 등이 잇따라 들어오면서, 대중적으로 약재의 집산지 역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상가형성추진해도 약재추진금이 20여개에 불과했던 이곳이 70년대 중반 4·5가 상인들이 이주해 오면서부터 급격히 성장, 현재 1천여 점포가 유진한 국내 최대규모의 명실상부한 한약의 거리로 자리잡았다.

연일 문전성시를 이룬 한약집산지에서 직송돼 일반한의원보다 20~30% 싸다는 것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 약재는 대부분 % 싸다는 것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 약재는 대부분 % 싸다는 것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알려진 사실이다.

약도



실지를 자율조직으로서 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상가관리위원회도 확 하려 오는 전원의 발걸음이 부성한다. 상가의 규모는 10여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한 90년 상가변영을 조 직하고 거리질서유지 등 질서유지

실지를 자율조직으로서 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상가관리위원회도 확 하려 오는 전원의 발걸음이 부성한다. 상가의 규모는 10여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한 90년 상가변영을 조 직하고 거리질서유지 등 질서유지

실지를 자율조직으로서 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상가관리위원회도 확 하려 오는 전원의 발걸음이 부성한다. 상가의 규모는 10여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한 90년 상가변영을 조 직하고 거리질서유지 등 질서유지

실지를 자율조직으로서 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상가관리위원회도 확 하려 오는 전원의 발걸음이 부성한다. 상가의 규모는 10여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한 90년 상가변영을 조 직하고 거리질서유지 등 질서유지

실지를 자율조직으로서 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상가관리위원회도 확 하려 오는 전원의 발걸음이 부성한다. 상가의 규모는 10여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한 90년 상가변영을 조 직하고 거리질서유지 등 질서유지

실지를 자율조직으로서 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상가관리위원회도 확 하려 오는 전원의 발걸음이 부성한다. 상가의 규모는 10여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한 90년 상가변영을 조 직하고 거리질서유지 등 질서유지